

피상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일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입시경쟁이 치열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청년실업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데도 그런 나라들에는 대학입학 경쟁이 우리만큼 치열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처럼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이 번창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에 교육열이 유난히 높고 교육 경쟁이 특히 치열한 것은 철두철미히 차세중심적인 한국적 세계관 때문이다. 하나님도, 내세도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모든 의미는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하고 삶의 모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立身揚名), 즉 출세하여 이름을 날리는 것이 삶의 의미며 목적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하여 고위공직자를 신발한 유교적 전통이 이어져서 오늘날 교육이 신분상승의 가장 효과적인 사다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은 단순히 축적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혀서 그것들을 삶에 이용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얻는 방편으로 받는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은 하나의 종교적 행위요 종교적 열정으로 추구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기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런 전통은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정보시대, 지식기반 사회에서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고 그 덕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도 이룩했다. 한국뿐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등 유교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과대평가된 교육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즉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고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모두가 출세하여 모두가 이름을 날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무한 경쟁에서 1등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패배자가 된다. 영국의 레기툼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발표한 2011년도 번영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생활만족도 (Average Life Satisfaction)에서 조사대상국 110개국 가운데 104번째로 나타나 매우 불행한 나라임이 드러났다. 엄청난 경쟁심과 교육열로 사회는 발전했지만, 개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불행해진 것이다. 종교적 열정으로 추구된 교육이 소기의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종교화한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며 동시에 동시에 실패한 종교다.

교육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한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높은 점수로 경쟁하는 교육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돕는 것이 높이 평가되는 인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너무 강연해서 거의 무의미해진 공자님 말씀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좀 인간답게 살고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송홍희 대표주관, (사)가톨릭교세계관학술동맹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임스트라티지유대 학교대학원에서 철학 석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한국 교육, 실패한 종교

6 송홍희(대표주관)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연령대 청중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있으면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평균 성적은 95점인데 3등이 되는 것을 더 원합니까? 성적은 75점이지만 1등이 되는 것을 더 원합니까?”하고 물어본다. 대부분 모두 빙긋이 웃는다. 모두 후자를 원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나는 좀 잔인하게 다그친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까? 공부하라고 보냅니까? 1등 하라고 보냅니까?”

여기에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다르지 않다. 심지어 다그치는 나도 예외가 아님을 발견한다. 나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의 학교 성적보다는 그들의 석차에 더 관심을 쓰는 것이다. 철학을 가르치고 합리성을 강조하면서도 나도 예누리없이 한국인이고 한국인의 세계관에 깊이 젖어있음을 발견하고 놀란다.

우리 사회를 망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번창하는 것은 학생들이 훌륭하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학생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다. 그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는 정부, 학부모, 학생 등 모두가 다 알고 가능한 한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한국인의 경쟁심이 이렇게 높은 한 사교육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